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May 2024 Issue | Vol. 36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페소의 장기적인 약세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 — 분석가들 — page 1-2
- 시너지의 균형: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보장 — page 2-3
- 상품용 여권 7월에 필리핀에 도입 예정 — PCCI — page 3-4
- Meralco와 JCCPI가 필리핀 에너지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합니다. — page 4
- DOF는 2024 성장 목표 범위를 유지합니다. — page 5
- DOLE 입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인상 거부를 부인 — page 5-6
- 세르베로스는 18개월 이내에 현대 자회사가 수빅 예비 지역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page 6-7

페소의 장기적인 약세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 — 분석가들

May 15,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필리핀 페소의 장기적인 약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지만, 통화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중앙은행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페소가 5페소 또는 63페소까지 하락하면 페소의 약세는 우려스러워집니다," 라고 GlobalSource Partners의 국가 분석가인 디와 C. 기니군도는 Viber 메시지에서 말했다.

"이는 추가로 0.4%포인트(ppt)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소의 위험 조정 인플레이션 예측치가 4%라면, 4.4%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페소는 화요일에 달러 대비 57.84페소로 마감하여 월요일의 57.86페소에서 두 센타보 강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의 마감가는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2년 11월 10일 58.19페소 마감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디와 C. 기니군도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즉시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페소가 급격하고 무질서한 변동을 보이거나 일부 투기가 지속되지 않는 한, BSP가 즉시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루벤 카를로 O. 아순시온, 필리핀 유니언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페소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BSP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는 BSP가 58페소 수준을 기준선으로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페소-달러 환율이 더 약해지면 추가 개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Viber 메시지에서 말했다.



PHILIPPINE
BOLLOZOS

STAR/WALTER

"하지만 이번 주 발표될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추가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외환 시장에 "소액"으로만 개입했다고 말했다.

BSP는 2022년 10월 페소가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인 59페소에 도달했을 때 외환 시장에 개입한 바 있다.

한편, 기니군도는 최근의 페소 하락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기 환율 전가는 페소가 1페소 하락할 때마다 추가 인플레이션이 0.08%포인트로 나타납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인플레이션은 4월에 3.8%로 3개월 연속 가속화되었지만, 2-4% 목표 범위 내에 5개월 연속 머물렀다.

하지만 기니군도는 페소가 경제 성장의 큰 감소, 재정 적자와 공공 부채의 급증, 그리고 국제 수지 적자의 큰 증가와 같은 조건에서만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Cont. page 2]

페소의 장기적인 약세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 — 분석가들

[Cont. from page 1]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에 5.7%로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 분기의 5.5%보다는 빠르지만 전년의 6.4%보다는 느린 속도입니다.

국가 정부의 부채는 1분기 기준으로 GDP의 60.2%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의 61.1%와 올해 설정된 목표치인 60.3%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3월 말 기준으로 4.46%를 기록하여 전년의 4.82%와 올해의 5.6% 적자 상한선보다 낮았습니다.

"만약 시장이 정부가 쌀과 기타 상품의 대규모 수입을 해결하지 않거나 밀수 및 부패를 막지 않거나 전반적인 거버넌스를 개선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면, 이는 페소의 상당한 약세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니군도는 말했습니다.

기니군도는 글로벌 경제 둔화와 유가 급등도 "페소가 미국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상승 위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신 개발 예산 조정 위원회(DBCC)의 가정에 따르면, 페소는 2024년에 55페소에서 57페소 범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피치 등급(Fitch Ratings)은 보고서에서 아시아 태평양(APAC) 지역의 투자등급 주권국들이 환율 압력으로부터 "제한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치 등급은 환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APAC 투자등급 주권국들의 신용 프로필에 단기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공식 준비금 버퍼가 악화되면 이 지역의 취약한 '프런티어 시장'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보고서는 언급했습니다.

신용 평가 기관은 외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이 APAC 신용 프로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APAC 주권국들은 환율을 저지하기 위해 준비금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환율이 달러 대비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5/15/595107/pesos-prolonged-weakness-could-stoke-inflation-analysts/](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5/15/595107/pesos-prolonged-weakness-could-stoke-inflation-analysts/)

시너지의 균형: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보장

May 16, 2024 | Z-FACTOR - Joe Zalardriaga | The Philippine Star



A drone shot captures the picturesque view of Laguna Lake in the background of the Ortigas Business District on March 28, 2024.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은 필리핀과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의 중심 요소로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필리핀은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에서 민간 부문 참여를 제도화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입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은 필리핀이 포괄적 성장을 달성하고 발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올해 초에 정부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법의 시행 규칙과 규정(IIR)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PPP 계획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고품질의 사회 및 개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 경제 및 개발 단체(NEDA) 장관 Arsenio Balisacan은 이것이 특히 "긴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필리핀 개발 계획(PDP) 2023-2028 아래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변혁 계획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각 부문의 강점을 활용합니다: 정부는 정책과 규제를 만들어내는 반면, 민간 부문은 주로 혁신과 경제 기업을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PPP의 성공은 양쪽 모두에게 균형있고 상호 존중하는 시너지를 육성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에 대한 방해는 중대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불균형을 초래하며 결국 필리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국유공공지대관리청(PEATC)과 그의 시도로 맨니라-카비테 고속도로(CAVITEX)의 관리와 운영을 카비텍스 인프라스트럭처 주식회사(CIC)로부터 인수하려는 논란이 있습니다. [Cont. page 3]

시너지의 균형: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보장

[Cont. from page 2]

PEATC의 당시 담당자인 Dioscoro Esteban Jr.는 CIC의 경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 다툼을 촉발시키고 이러한 파트너십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높였습니다.

이전에 Esteban은 맨달교법 청구를 제출하여 CIC를 CAVITEX 운영에서 제거하는 노력을 공식화했습니다. Esteban은 CAVITEX 운영과 도로 통행료 수납을 PEATC로 완전히 이양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한 법원에 CIC가 CAVITEX 운영 계약 서비스를 PEATC로 이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CIC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CIC는 Esteban에 대한 형법 위반을 포함한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을 공공부정청(Ombudsman)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CIC는 프로시저적 불규칙성을 강조하여 정부기업법률자문소(OGCC)가 아닌 개인 변호사의 사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OGCC는 PEATC와 같은 국유 및/또는 통제하에 있는 기업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이 사안의 법적 가치는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하겠지만, 이 문제로 나는 기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공 서비스에서 민간 부문의 중요한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민간 부문은 귀중한 전문 지식, 자원 및 기술을 제공하여 공공 이익을 위한 정부 계획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를 촉진합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인수는 기본적인 대응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협력의 정신을 약화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향후 민간 부문 참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민간 부문이 효과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규제를 준수하고 정확한 요금을 국가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과 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민간 부문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10대 경제 정책 목록의 중요한 부분이며, 모든 정부 기관을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은 행정부에 피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필리핀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의 효과를 인식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중요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민간 부문은 필리핀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 불가피한 기여는 번영하는 경제적 미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균형있고 시너지를 이루는 접근을 유지함으로써, 정부와 민간 부문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공공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5/16/2355362/balance-synergies-ensuring-effective-public-private-partnership](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5/16/2355362/balance-synergies-ensuring-effective-public-private-partnership)

상품용 여권' 7월에 필리핀에 도입 예정 — PCCI

May 16, 2024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2024년 7월부터 필리핀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들이 특정 조건하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상품용 여권"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가 밝혔습니다.

수요일 발표된 성명에서 PCCI 회장 Enunina Mangio는 "우리는 필리핀에서 ATA Carnet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력하는 것에 만족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angio는 이 "전략적"인 조치가 일시적인 수출 및 수입을 간소화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이 기업에게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CCI에 따르면 ATA Carnet, 일명 "상품용 여권",은 1년까지의 재물 입장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국제 관세 문서입니다.

"PCCI는 '상품이 특정 기간 내에 재수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수출 및 수입을 일시적으로 참여국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nt. page 4]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상품용 여권' 7월에 필리핀에 도입 예정 — PCCI

[Cont. from page 3]

이 비즈니스 그룹은 이를 "필수적인 마케팅 도구"로 표현하며, 이것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SMEs)이 수출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A Carnet 시스템의 시행을 앞두고 PCCI는 이제 상품용 여권을 활용할 의도인 기업들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CCI는 또한 ATA Carnet 시스템의 시행이 "필리핀이 무역을 효율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데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CCI는 "ATA Carnet 시스템을 위한 인증 획득 및 현지 워크샵 참석에 관심 있는 기업은 추가 정보와 지원을 위해 필리핀 상공회의소와 연락하기를 권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즈니스 그룹은 또한 수출업체, 산업 협회, 상공회의소, 스포츠 협회,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주최자 및 비즈니스 전문가를 위한 현지 워크샵을 일정표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5/16/passport-for-goods-to-be-in-place-in-phl-in-july-pcci/](https://businessmirror.com.ph/2024/05/16/passport-for-goods-to-be-in-place-in-phl-in-july-pcci/)

Meralco와 JCCIP이 필리핀 에너지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합니다.

May 15, 2024 | Manila Bulletin



필리핀 전기회사(메랄코)는 필리핀 일본상공회의소(JCCIP)와 파트너십을 맺어 에너지 부문에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트렌드에 관한 합동 웨비나에서, 메랄코는 JCCIP 회원들에게 그들의 의무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ESG 리더십을 강화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잠재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국내 최대 전력 공급업체인 메랄코는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기관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JCCIP 내 유사한 목표를 가진 기관들과의 이상적인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일본 또는 일본 관련 기업 및 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인 JCCIP는 상호 이익과 비즈니스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eralco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JCCIP는 기술 발전과 투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협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Meralco 기업-산업 및 계열 부문 책임자인 Bernice Gretchel P. Garcia-Rama가 말했습니다.

한편, Meralco 에너지 서비스 부문 책임자인 Danilo B. Aquillo는 전력 공급업체의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이 프랜차이즈 지역 내 커뮤니티에 긍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는 회사의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1,500MW의 공급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1,500MW의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깨끗한 에너지로의 공정하고 체계적이며 저렴한 전환에 대한 약속이 포함됩니다.

Meralco는 또한 2030년까지 자사 차량의 25%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력 분배 부문에서는 Meralco 기업-산업부문 책임자인 Victor L. Risma IV가 회사가 스마트 그리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높은 효율성, 더 나은 수요 대응 및 확장된 분배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부는 서브스테이션에서 지능형 전자 장치를 포함하는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최신 국제 표준인 IEC 61850의 채택입니다.

Meralco는 또한 스마트 미터의 전개, 고급 계량 인프라의 구현,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의 구현, 그리고 향후 분산 에너지 자원 관리 시스템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4/5/15/meralco-jccipi-team-up-to-advance-philippine-energy-sector](https://mb.com.ph/2024/5/15/meralco-jccipi-team-up-to-advance-philippine-energy-sector)

DOF는 2024 성장 목표 범위를 유지합니다.

May 15, 2024 | Darwin G. Amojelar | Manila Standard



재정부(DOF)는 검험적인 1분기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2024년 경제성장 목표의 하한선을 달성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랄프 렉토(Ralph Recto)는 1분기 국내 총생산(GDP)이 5.7% 증가한 것은 "여전히 좋은 성장"이며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목표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올해 말까지 6%에 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6%에서 7%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렉토는 이전에 필리핀 경제가 제조업 부문의 강력한 국내 생산을 주도로 한 1분기 실적을 통해 아세안 지역에서 선두 주자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이 베트남(5.7%), 인도네시아(5.1%), 말레이시아(3.9%) 및 싱가포르(2.7%)와 함께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축하해야 할 것은 제조업 부문에서 보이는 격려할 만한 성장입니다. 이 부문은 장기적인 고용, 생산성, 부가가치 창출 및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필리핀이 아시아의 주요 제조산업 허브로 성장하는 길을 열어 놓습니다,"라고 렉토는 말했습니다.

한편, 렉토는 통화정책위원회가 5월 16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하니, 지금부터 회의까지 무언가가 바뀌지 않는 한, 아마도... 이번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아니겠지만,"라고 렉토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통화정책위원회는 2023년 10월 이후 4차례의 정책 회의에서 1박 자금 조달 금리를 6.5%로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당좌 예금 및 대출 시설의 이자율을 각각 6.0% 및 7.0%로 유지했습니다.

[Source: 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447317/dof-sticking-to-2024-growth-target-range.html](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447317/dof-sticking-to-2024-growth-target-range.html)

DOLE, 입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인상 거부를 부인

May 15, 2024 | Gerard Naval | Malaya Business Insight

상원의장 후안 미겔 주비리와 노동 단체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노동부(DOLE)는 어제 법제정된 최저임금 인상 제안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Malaya
Business Insight

DOLE은 성명에서, 전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 제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국회의 명령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데는 국회만이 권한이 있습니다. DOLE은 이 권한의 행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DOLE은 말했습니다.

DOLE은 "DOLE은 입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의 주요 권한과 지혜를 따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부서는 그것의 참여가 입법자의 자원 기관으로서의 입례를 제공하는 데로 한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행정부원으로서 DOLE의 헌법적 의무는 그것의 임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회 앞에 나타나 듣기를 허락 받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입법의 지원을 위해 기술적인 입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라고 DOLE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이 조치가 법률로 채택될 경우 기관이 이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국회의원들에게 보장했습니다. [Cont. page 6]

DOLE, 입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인상 거부를 부인

[Cont. from page 5]

"DOLE의 의무는 어렵더라도 그 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라고 DOLE이 말했습니다.

제안된 P150의 법제정된 임금 인상은 하원에서 아직 처리 중이며, 2023년 P100 매일 최저임금 인상법은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노동장관 비엔베니도 라게스마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법제정된 임금 인상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해고시킬 수 있고, 필수적인 상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으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안 미겔 주비리가 라게스마를 공격하여 노동부의 고위임금에 반대하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며, 비즈니스 부문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단체인 필리핀 노동조합총연맹(TUCP)과 Sentro ng mga Nagkakaisa at Progresibong Manggagawa(SENTRO)는 라게스마가 법제정된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고용주의 포스터 보이"가 되어 사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news/dole-denies-rejecting-legislated-wage-hike/

세르베로스는 18개월 이내에 현대 자회사가 수빅 예비 지역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ay 15,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HHCI PHILIPPINES

미국 투자 기업 Cerberus Capital Management은 수빅의 선박용지 일부를 임차한 한국 조선소가 12-18개월 내에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Cerberus의 Agila Subic 선박용지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 제품을 생산할 계획인 한국 현대 조선소 그룹의 HD Korea Shipbuilding and Offshore Engineering과의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시설은 해상 풍력 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Cerberus의 Senior Managing Director Alexander Benard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수빅 지역으로의 선박 건조의

재개는 수억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수반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D Hyundai KSOE는 저희로부터 선박용지의 큰 부분을 임차하고, 최초로 해상 풍력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어 수빅으로 해양 제조업을 대규모로 재개할 것입니다,"라고 Benard 씨가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우 상당한 고용 기회가 만들어지며, 수빅 베이 지역에 경제 활동과 활기가 실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운영을 확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화요일 말라카냥 궁에서 공식 발표된 HD Hyundai KSOE와의 합의는 Cerberus 계열사인 Agila South, Inc.를 통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년 전 한진 시설을 인수할 때, 선박용지를 재활성화하고 다목적 시설로 재편성하고, 수빅 베이 지역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계획했습니다,"라고 Benard 씨가 말하면서 이전 점유주인 13억 달러의 부채를 연체하고 파산한 이전 점유주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주요 선박 건조 및 해양 공학 회사와 협력하여 수빅 베이와 그 주변 지역의 미래에 상당한 헌신을하기로 한 이번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에 만족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HD Hyundai KSOE는 해상 풍력 구조물, 선박 블록 제작, 선박 수리 및 기타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는 선박용지의 가장 큰 건조장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HD Hyundai KSOE의 최고 경영자인 김성준은 "이 노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필리핀을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더욱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erberus는 현재 수빅 베이 시설에 네 개의 주요 임차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은 글로벌 해저 케이블 회사 Subcom, 물류 회사 V2X 및 필리핀 해군입니다. [Cont. page 7]

세르베로스는 18개월 이내에 현대 자회사가 수빅 예비 지역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Cont. from page 6]*

베나드 씨에 따르면 전체 시설은 20,000명의 노동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는 Hanji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Philippines, Inc.의 고용 수준과 동일합니다.

Cerberus는 2022년 4월에 해당 선박용지를 인수하고 Agila Subic으로 재브랜딩했습니다.

"이는 3년 동안 시설이 사실상 폐쇄되어 있었으며, 작동하지 않았고, 시설이 3년 동안 작동하지 않으면 상태가 다소 파손될 수 있습니다,"라고 베나드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에 자산을 인수하고 시설을 재활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Hanjin이 시설을 선박 건조 공장으로 사용한 것과 같은 사업 계획을 실행하는 대신, Cerberus는 다목적 접근 방식을 취하여 다양한 산업 및 제조업 임차인에게 임대했습니다.

베나드 씨는 Cerberus가 선박 수리 및 유지 보수 사업체와 대화를 나누어 시설의 잔여 공간을 채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계획의 일부이며, 실제로 그것이 마무리되기를 예상하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베나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몇몇 당사자들과 논의 중이며, 우리는 올해 말에 상업 회사와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선박 수리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베나드 씨는 Cerberus가 필리핀의 다른 자산과 기회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주요 범주는 반도체 제조 및 조립과 같은 분야와 물류 자산과 같은 유형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물류 및 교통이 이 나라에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유형의 것들이며, 우리는 다음 1~2년 동안 몇 가지 구체적인 기회를 발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5/15/595420/cerberus-sees-hyundai-unit-starting-at-subic-yard-within-18-mon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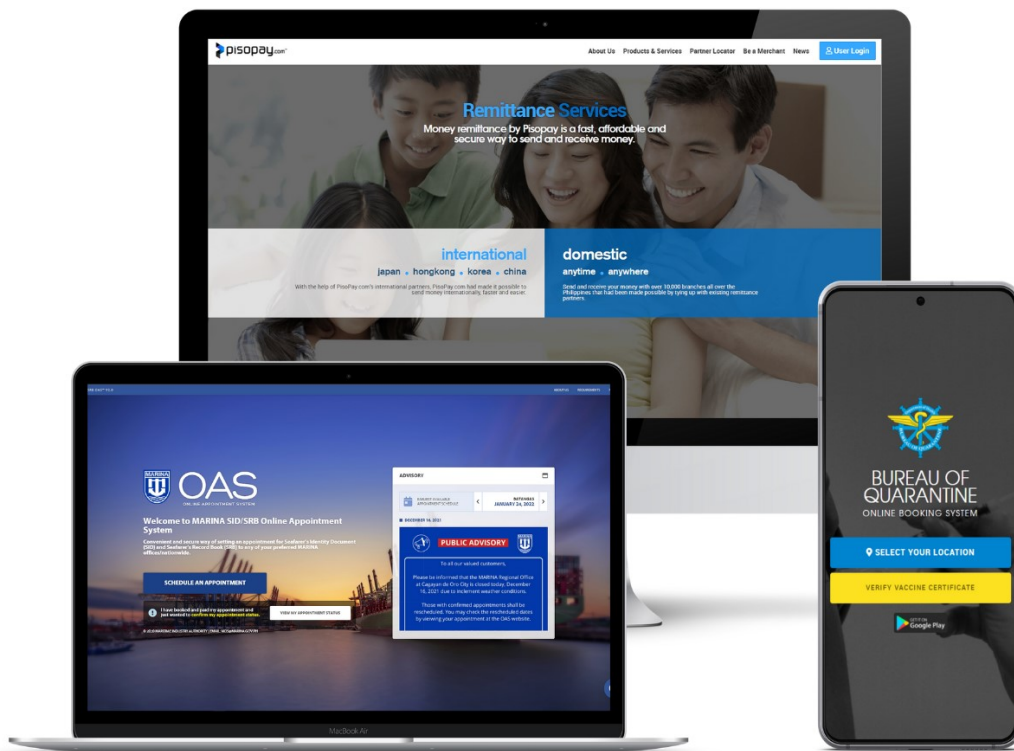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